'공원 운동 제한 조치' 이용자·주민 간 갈등 고조

광주 서구 쌍학어린이공원 '논란' 노약자 안전 위협 민원 골대 철거 소음 피해 호소에 야간 운동 금지 "운동할 권리 침해 일방조치" 반발

광주서구의 쌍학어린이공원 이용 제한 조치가 주민과 이용자 사이에 논란을 일 으키고 있다. 주민들은 농구 등 운동 소음 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체육 활동 제한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반면, 공 원 이용자들은 '운동할 권리를 침해한다' 며 맞서고 있다.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쌍학동 쌍학어린 이공원 곳곳에는 '심야 시간 농구장 이용 금지', '이용금지 시간 밤 9시~아침 7시' 등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에는 '인 근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공원 이용객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 주민들의 운동 소음에 따른 생활불편 민원이 잇따르면서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것.

1987년 다목적운동장으로 개장한 쌍학 어린이공원 인근 경로당 및 주민들은 수 년 전부터 서구에 '소음·안전 문제로 공원 체육 활동을 제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 해 왔다. 이에 서구는 소음 문제는 시간 규 제로, 안전 문제는 축구 골대 전부와 농구 골대 2개 중 1개를 철거하는 방안을 시행 했다.

공원 이용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주민 들의 일방적인 요구와 편의만 고려했다는 불만이다.



철거된 축구 골대 뒤에 쌍학경로당이 위 치해 있다.

이곳에서 30년 간 배드민턴을 하고 있다는 곽건국(83)씨는 "주말만 되면 어린이들이 몰려 와 축구·농구 등을 하던 공간이었는데 골대가 없어진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힘들다"며 "시간 제한 탓에이른 아침에 운동도할 수 없다. 시민의견을 듣거나 양쪽 주장을 조율해야하는데일방적으로결정한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주민 신경희(60)씨도 "가까운 아파트에 사는데, 아이들이 운동하는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던 적은 없었다"며 "밤 또는 새벽에도 운동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기좋았는데 지금은 볼 수 없어 참 아쉽다"고말했다.

반면 공원 인근 주민들은 소음 문제 완화와 안전이 확보됐다면서 이용제한 조치를 지지하는 분위기다.

공원 옆 아파트 주민 명호경(71)씨는 "아이들이 축구할 때마다 아파트 1층부터 소음이 올라왔다. (골대를 없앤) 지금은 소음이 줄었다"고 말했다.



최근 찾은 광주 서구 쌍학어린이공원에 '심야 시간 농구장 이용 금지'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모(48)씨도 "축구 골대 뒤에 경로당이 있는데 공이 넘어와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다반사였다"며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골대를 잘 없앴다고 본다"고 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관할기관인 서구는 '중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인장이다

양동식 서구 공원녹지과장은 "이용 제한 현수막의 경우 이용객이 많은 봄부터 가을까지만 건다. 민원이 없는 겨울엔 현

수막을 내린다"며 "골대의 경우 경로당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부득 이하게 없앨 수 밖에 없었다. 농구 골대를 남겨놓는 등 격렬한 운동을 제한하는 선 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이어 "공원에서 발생하는 민 원이 수년 째 이어지고 있다. 이곳은 접근 성이 좋아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잦다"며 "지자체가 주민 민원을 무시할 수도 없지 않나. 양쪽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는 데 어 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상호간 소통을 통한 해결'

이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광산구이웃갈등조정가는 "오래지속된 갈등은 더 큰 문제를 낳기도 한다. 입장차 가 극명한 경우 되레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집단 대 집단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며 "도시 공원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 로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용돼야 한다.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공정한 해 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론· 토론장을 여는 등 대안적 방안이 마련돼 야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찬 수습기자 chan.park@jnilbo.com

'7년 만 우승 도전' 2024 MSI 중국 청두서 개막

한국, 젠지 1시드·T1 2시드 참가 19일 결승··· 우승팀 롤드컵 진출

올해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첫 국제 대회인 '2024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MSI)이 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청두에서 열린다. 이번 MSI 우승팀은 소

속 지역의 추가 진출권으로 간주되는 첫 '리그오브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롤드컵) 진출권을 확보하게 되면서 그 어느때 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한국에선 젠지와 T1이 출전한다.

2024 MSI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플레이-인 스테이지와 7일부터 19일 결승전까지 이어지는 브래킷 스테이지로 구성된다.

한국팀(LCK) T1은 2시드로 플레이-인 스테이지부터 출발한다. 8개 팀이 2개 조로 나뉘어 3전 2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을 치른다. 다크호스는 지난 2011년 롤드컵 초대 우승을 따낸 유럽 (LEC)의 프나틱이다.

브래킷 스테이지에서는 8개 팀이 5전 3

선승제 더블 엘리미네이션 대진으로 경기를 치른다. 브래킷 스테이지에는 플레이-인 스테이지를 통과한 4개 팀과 △한국 젠지 △중국 빌리빌리 게이밍 △유럽 G2 e 스포츠 △북미 팀 리퀴드가 참가한다. 대진은 플레이-인 스테이지가 마무리된 직후인 오는 5일 진행되는 조 추첨식 결과에따라 정해진다.

라이엇게임즈는 올해부터 '같은 지역 출신 팀은 같은 대진에 배정될 수 없다'라 는 규정을 브래킷 스테이지에 적용했다. 때문에 8강 대진표의 상단과 하단 대진은 서로 다른 지역 팀으로 구성된다. 브래킷 스테이지는 5월 11일과 12일만 오후 1시 에 시작하고, 모든 경기는 오후 6시에 진 행된다.

젠지 주장 '피넛' 한왕호는 출국 인터뷰 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팬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로 돌아오겠다"고 선전을 다짐했다.

T1 주장 '페이커' 이상혁은 "팬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MSI 우승, 이번 에는 꼭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성현 기지

